

## 4.1 국·영문 혼용 학술지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Letters, MBL) 등재

국·영문 혼용학술지인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지(이하 MBL)은 한국연구재단(구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지 평가에서 등재 학술지로 2001년에 선정되었으며 매년 계속 평가를 통하여 등재 학술지 적격 판정을 받아오고 있다. (2022년 현재 총 5,973종의 학술지 중 한국연구재단의 KCI 등재지는 총 2,411개이며, KCI 등재후보지는 257개이다). 한국연구재단은 국내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들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키고 재단의 각 연구비 지원에 따른 학술연구업적 평가의 객관적 자료로 활용하고자, 국내 발행 학술지에 대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방법으로는 매년 약간의 변동이 있었으나, 크게 학술지 체계 평가 분야와 내용평가로 구분하여 정량 및 정성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2010년부터는 학계의 연구윤리 정착유도를 위하여 연구윤리 규정 제정이 의무화되었으며, 현장실사를 통하여 제출한 자료의 신뢰성 검증도 이뤄지고 있다. 또한 학술지의 내용과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계량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KCI(Korean Citation Index/한국학술지인용색인)인용지수 평가가 2011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KCI 인용지수 평가 배점이 더 높아지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기에, 앞으로 KCI 인용지수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본 학회 학술지들을 널리 알리고, 논문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08년에는 다수의 대학과 연구기관이 학술적 가치를 인정하여 국제저널로 인정하고 있는 Scopus에 등재되었고 이외에도, EMBASE/Excerpta Medica, Elsevier BIOBASE/Current Awareness in Biological Sciences에 등재되어 있다.

MBL 편집위원회에서는 SCI(E) 등재 추진을 위해 단계별 심사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 과제로 계획하고 있으며,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지가 국내의 미생물 생명공학 연구의 견인차 구실을 수행함과 동시에 관련 분야 연구자들의 정보교환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최우수 학술지로 발전해 나가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있다.